

국내 최대의 생산설비와 최고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배관자재 제조업체



두리화학 주식회사

두리화학(주)는 1974년 모체 공장인 대성화학을 창립한 이래 플라스틱 배관자재 생산 전문업체로 성장·발전해 왔다.

그동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 감동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두리화학(주)는, 최근 공동주택 배관 시스템의 최대 결점인 배수 소음 및 결로를 별도의 방음 및 보온 작업을 하지 않고도 배수소음 및 결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여, 국내 유수의 건설 업체에 납품하여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게 되었다.

동종업계에서 국내 최대의 생산 설비와 자동화 제조 공정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적합품 발생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두리화학(주)는 기업의 최대 목적인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감동경영”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무한 경쟁시대의 21세기를 맞아, 항상 고객과 함께 연구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고객 앞에 다짐한다.



최 백 규 대표이사



PVC배관자재 생산 전문업체로 성장

1974년 모체 공장인 대성화학을 창립한 이래 PVC 배관자재 생산 전문업체로 성장·발전해 왔다. 그동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 감동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두리화학은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배관 시스템의 최대 결점인 배수소음 및 결로를 별도의 방음 및 보온작업을 하지 않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여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에 납품하여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게 되었다.

두리화학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저소음 NC(Noise Control)SYSTEM 및 저소음 슬리브, 토목관 및 우수받이 등을 개발하여 다시 한 번 고객 여러분에게 우수한 제품으로써 인증을 받고 있으며 그 이후 꾸준히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업계 국내 최대의 생산설비와 자동화 제조공정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적합품 발생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거문화의 획기적 발전과 친환경 문제에도 기여

두리화학의 대표제품은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우·오수 배관자재인 저소음용 파이프 및 이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장실, 욕조 세면기 등 배수라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저소음 이중파이프 및 양변기 전용 삼중엘보, 이중 이음관을 개발하여 배수소음 및 물적, 인적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소음 저감을 위해 LG화학 테크센터와 공동개발한 저소음 삼중 NC(Noise Control)SYSTEM을 개발하여 국내 모든 건설사 및 LH공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양변기 이중슬리브, Swing Trap 등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의 수 처리 사업에 1차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수 처리 모듈(Module)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친환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 앞으로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이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왜곡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

최근 5년 간 주택경기의 불황으로 PVC파이프 및 이음관 제조업체 및 판매 대리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사 및 설비시공 전문 업체들의 부실로 이증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VC제품은 정품을 사용하는 정부조달물량 및 공공기관, 아파트시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30%정도이며 나머지 70%는 일반 수요처에서는 비KS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유통되고 있어 PVC제품은 뛰어난 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급 배관자재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KS제품 및 정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대부분의 PVC제조업체에서는 불량 원료를 수입하여 PVC제품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기관이 단속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PVC파이프 및 이음관 제품의 시장은 비KS제품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PVC제품 KC마크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 인식 전환 및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PVC파이프 및 이음관의 70%가 불법·불량제품들이 유통되어 시장의 혼돈을 방치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PVC파이프 및 이음관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용하는 소비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PVC파이프 및 이음관은 반영구적인 제품이나 불법·불량제품으로 저급한 배관자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판매업체, 시공업체, 사용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관련업체들의 제도적 개선 및 계몽, 단속이 병행되어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2014년 6월27일부터 시행되는 KC마크 인증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체, 시공업체, 사용자들의 협조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계 발전을 향한 두리화학주의 지속적인 노력

두리화학은 2009년도에 개정된 KS법규를 시행한 이후 사용자(소비자)들에게 정품 사용을 위해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 KS제품을 생산 유통시킨



제조업체, 판매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눈앞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KS규정대로 생산·판매하면 제품사고 및 유해물질 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두리화학에서는 정품만 생산하며 제품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VC제품의 우수성을 계속 홍보하고 KC마크 인증제도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저급제품이 퇴출 될 때까지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제조업체들 간의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정품 제조업체와 불법·불량 제품 제조업체의 이원화로 PVC제품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았다. KC마크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정품PVC 제품으로 공정한 경쟁 및 유대강화로 정부 및 공공기관, 소비자들에게 PVC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모든 PVC업체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윤추구와 고객감동,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두리화학㈜

두리화학은 모든 PVC업체들이 발전하여 지금보다 우수한 PVC제품을 개발하여 PVC의 우수성을 알려 다른 배관자재보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PVC제품이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데 PVC제품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업의 최대 목적인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감동경영”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항상 고객과 함께 연구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고객 앞에 다짐한다.

또한, KC마크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가 PVC공산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불법·불량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PVC 관련 업체들의 유대강화 및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윤추구와 고객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하는 두리화학의 당찬 꿈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길 바란다.

